

중국인민해방군은 당의 깃발에 따라 새로운 길에 나섰다

----중국인민해방군 창건 94주년 경축하여

중국인민해방군은 1927년 8월 1일 남창(南昌) 봉기부터 2021년 8월 1일까지 벌써 94년의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국인민해방군 창건 9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21년은 중화민족 역사상 매우 특별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하여, 중국은 공산당의 영도 아래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를 건설하였고, 중국 인민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새로운 길로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은 지난 94년 동안에 공산당의 굳건한 지도와 지휘 아래 조국수호와 인민을 위한 봉사, 세계평화 수호를

목적으로, 우리는 강적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길에 가시덤불을 헤치고 연기와 불을 뚫고 위대한 희생을 치러가며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약(弱)에서부터 강(強)으로 발전하였고, 당과 인민을 위한 위대한 역사적 공훈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으며 세계 평화와 발전의 중요한 힘이 되었습니다.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 기념식에서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 기념식에서 중요한 연설 하는 시진핑 총서기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연설을 하셨습니다. “신시대 강군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신시대 군사전략을 관철하여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를 견지하고, 중국특색의 강군의 길을 가야 한다.” 그리고 “정치건군(政治建軍), 개혁강군(改革強軍), 과기강군(科技強軍), 인재강군(人才強軍), 의법치군(依法治軍)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인민군대를 세계 수준의 군대로 건설하며 더 강한 능력과 더 확실한 수단으로 국가의 자주권, 안보,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는 새 시대 중국국방과 군대건설의 방향이며, 전군 장병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근본적인 준칙입니다.

중국은 확고부동하게 평화 발전의 길을 걸어갈 것임

니다. 평화, 조화, 화목은 중국 전통 문화의 정수이자 핵심이며 정복, 점령, 식민지화는 결코 중국 문화의 유전자가 아닙니다. 중국 고대의 병서인 손자병법(孫子兵法)은 “병자, 국지대사, 사생지지, 존망지도, 불가불찰야 (兵者, 國之大事, 死生之地, 存亡之道, 不可不察也)”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요지는 전쟁을 중시하면서도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대이래 중국은 전쟁의 고난을 겪으면서 열강의 침략을 많이 당했고 인민은 참혹하게 살육과 노역을 당했습니다. 침략 확장에 시달리는



국가로서 중국인민은 평화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중국 건국 70 여년이래 중국은 시종일관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평화외교정책과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견지해 전쟁을 자행한 적이 없고 남의 땅을 한 치도 약탈한 적도 없으며 세계에서 헌법에 평화발전을 명기한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히 영토를 확장하지 않으며 영원히 세력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인민은 세계각국의 인민들과 같이 화목하게 지내고 조화롭게 발전하며 평화를 함께 만들고 함께 지키며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옛날부터 공동체정신을 강조해 왔던 중국인민은 “세계가 좋아야 중국도 더 잘 되고, 중국이 잘 되면 세계도 더 좋아진다” 는 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백년간

직면하지 못했던 대변화를 겪고 있고 인류는 테러와 기후변화와 같은 더 많은 글로벌문제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니 어느 나라도 수수방관하지 못하고 독선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세하에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은 글로벌이슈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중국인민은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는 올바른 길에서 전 세계 인민들과 손을 잡고 항구적인 평화, 보편적 안전, 공동 번영, 개방포용,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구축할 용의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동안 중국군대는 인류운명공동체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천



중국군대 파키스탄군대에 백신 지원

하고 국제 사회에 평화유지, 국제상선 호송작전, 인도적 구호와 같은 공공안전재를 제공했으며 세계 평화와 안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코로나 19 발생한 이후 중국군대는 중앙군

사위원회와 시진핑 주석의 결정과 지시를 철저하게 이행하였으며 파키스탄, 캄보디아, 필리핀, 콩고(브라자빌), 적도 기니, 튀니지, 시에라리온, 수단, 라오스, 레바논 등 나라들을 포함한 수십개국의 군대에 백신을 비롯한 방역물자를 지원하였고 여러나라 군대에 의료 전문가팀을 파견하여 여러 나라 군대와 방역경험교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와 중국 군대가 국제적 책임과 국제의무를 이행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인류위생건강공동체 건설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중국은 공동·통합·협력·지속가능한 신안전관(新安全觀)

을 실천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여러차례 강조했듯이 국강필패(國強必霸)(국가가 강성해지면 반드시 패권을 추구한다)는 역사의 필연 아니고 중국인민들도 이런 논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국 고대의 철학자들이 “자기가 싫은 것은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己所不欲, 勿施于人)” “협화만방, 화이부동(協和萬邦, 和而不同)”이라는 이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전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공동·통합·협력·지속가능한 신안전관 실현을 주창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지지하며 함께 건설·함께 공유·윈-윈(win-win)하는 세계안전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체제와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확고히 견지합니다. 중국은 시종일관 세계 평화의 건설자, 세계 발전의 기여자, 국제 질서의 수호자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현재 개별 국가가 냉전적 사고방식과 제로섬 게임의 관점을 고수하고, 유아독존에 빠져 패권을 추구하고 있으며, 국제전략경쟁과 소위 “중국 위협”을 과장하여 국제질서와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훼손하고 대립과 긴장을 자주 조성해서 중국을 억제하고 세계패권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국가의 행동은 평화·발전·협력·윈-윈(win-win)하는 역사적 흐름에 어긋나는 것이며 세계 인민의 염원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인류를 전쟁과 고통의 나락으로 끌어들이 뿐이고 인류

공동의 반대도 자초할 것이며 또한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은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입니다. 평화와 발전은 오늘날 세계의 주제이며, 평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자 전 세계인의 공통된 염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패권주의(霸權主義), 강권정치(強權政治), 전통적 및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도전이 여전히 존재하며



중국은 여전히 복잡하고 다양한 안보위협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국가주권, 안전과 발전이익, 영토보전 수호의 간고하고 막중한 임

무를 맡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고 국가안보와 발전 이익에 부합하는 확고한 국방과 강력한 군대를 건설하는 것은 중국특색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한 전략적 과업이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강력한 보장입니다. 최근 중국군대는 시진핑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과 시진핑강군사상을 견지하고 신시대 군사전략지침을 철저히 관철해서 기계화,정보화,지능화를 통합 발전하여 전면적으로 훈련 및 전비를 강화하고,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계속 보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발전하고 성장할 권리가 있고, 중국인민은 더 나은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중국은 스스로의 길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려는 중국 정부와 인민의 결의와 의지는 반석과 같이 확고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국가의 주

권,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결의가 확고하고 국가의 영토 보전을 수호하다는 결의가 확고하며 능력을 시종일관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세계 평화와 발전을 수호하는 데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중국군대는 인류운명공동체 이념을 실천하며 국제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평화유지 활동, 항해안전 활동, 인도주의 구호, 방역협력 등 공공안전재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끊임없는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중국군대는 1990년 이후 25개의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했고 총 4만여명의 병력을 파견하였습니다. 중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중 가장 많은 평화유지

군을 파견하는 나라이자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두번째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2400명 이상의 중국 평화유지군이 전 세계에서 임무를 수행하



고 있으며, 8000명 이상의 평화유지군 상비부대가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원정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2008년부터 38회에 걸쳐 해군호위편대를 아덴만과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하여 유엔상선호송임무를 수행했고 거의 만여척의 중국 및 외국 상선을 안전하게 호송했으며 국제상선호송행동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이 외에도 중국군대는 각국에 의료전문가팀을 파견하여 각국 정부와 군대의 방역과 환자의 치료를 도와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가까운 이웃이고 중요한 전략적 협력동반자입니다. 두 나라 지도자들의 전략적 지도 하에 최근 몇년 동안 한중관계는 꾸준하고 건전하게 발전하여 두 나라와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중한 양국군대는



제한 중국인민지원군 열사 유해 송환

는 양국 관계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최근 몇년동안에 상호 존중, 평등호혜의 원칙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수행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했고 우정도 심화하였습니다. 또한 한중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지역 평화 유지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중국인민해방군은 한국군과의 우호교류와 실무협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양국관계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새로운 기여를 하겠습니다.